

성경 예언 해설집 <30회>

사도 요한

해설

(지나호에 이어서)

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세계 각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니 하나님의 원수 붉은 용 짐승과 이간자 감람나무의 싸움으로 감람나무가 서있는 한국 땅에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기사들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14만 4천 등은 영적이요 상징적인 말이다. 이 기사를 육적으로 해석하므로 예수교가 헛된 고생을 하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듯 연속적으로 재앙이 쏟아져 지구가 파멸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상징적인 것이요 육적 재앙은 아니다.

계시록의 핵심 기사인 2장과 3장에서 이간자의 출현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발견하게 된다. 7장의 인 맞은 자, 14만 4천의 비밀과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12장에 붉은 용 마귀와 싸우는 영모(靈母)와 영자(靈子)의 정체와, 13장에 두 짐승(정권과 교권의 실상과, 16장에 아마겟돈 전쟁과, 17장에 짐승과 음녀의 정체와, 20장에 사단의 결박과 석방과 천년성의 실상과, 21장, 22장의 새 세상, 새 예루살렘의 시기와 위치 등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 14만 4천의 비밀에 대해서는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PP 414-417, CHAPTER 10-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사만사천의 의인」을 참조하시라.]

이간자(계2장~3장)

본문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자(使者)에게 편지한 내용이니 지금까지 성경 해석은 요한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생각을 하며, 광의(廣義)로 해석하면 지구상에서 예수를 신앙하는 신자들을 향한 신앙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한 이후 실낙원을 복낙원시키려고 적지(敵地)에서 외롭게 싸우면서 권토 중래(捲土重來)를 하려고 전략을 세울 때 속된 말로 연극과 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간자는 동방에서 출현시키면서 서방에서 출현하는 것같이, 소아시아(터키) 교회에서 나오는 것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간자가 되는 것같이 알려져 예수에게 충성하는 자는 모두가 이간자로 믿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간자는 영모가 낳은 영자 한 사람이요 그가 붉은 용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올랐다고 하였고, 19장에서 마귀를 멸하는 백마승인(白馬乘人)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라고 명시하였다.

본문상으로 일곱 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언급하였으나 다른 교회는 바울의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한이 유배지에서 에베소에 돌아와 계시받은 것을 일곱 교회 사자(使者)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으니 일곱 교회는 일곱 수인 하나님의 상징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있는

사람을 예수로 표시하였고 요한보다 6백년 전 사랍인 스가랴 선지의 글에서 일곱 금등대 옆에 있는 사람은 수룸바벨과 기름부음 받은 감람나무로 기록하였다.

스가랴서와 계시록은 내용이 같으니 성소의 일곱 금촛대, 일곱 등불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것으로 당신이 이간자가 되어야 뜻이 완성되는 것을 암시하였다. 성소의 시무자는 제사장이니 스가랴서에서 당시 유대 총독 수룸바벨로 표시하였으나 육적 총독 수룸바벨은 형식적인 인물이요 사명자가 아니니 장차 오시는 온 세상에서 주 하나님을 모신 자, 감람나무를 가리킨 것이다.

성경에서 최고의 비밀이 여기에 있으니 육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요한 당시 땅의 일곱 교회 실태를 말한 것으로 알게 만들어 이간자의 중대성을 알지 못하게 인봉하였다.

스가랴서도 육적으로 해석하여 스가랴 당시의 사랍인 수룸바벨로 인정한다면 역설이 되는 것이니 당시 수룸바벨이 여러 사람을 인도하여 바벨론에서 본국에 귀환하여 성전을 세우려고 시도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스가랴는 수룸바벨이 성전을 시작하고 완성한다고 하였고 수룸바벨 앞에 대항하는 세력은 무너져 평지가 된다고 하였고 일곱 눈 다림줄이 그에게 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룬다고 하였다.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이라 하였으니 만민 중에서 영적 수룸바벨인 이간자 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복잡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 이간자는 축복과 권세를 준다고 한 것은 이간자는 만 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벗어나 자유를 얻은 승리가 되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였으니 성경의 짝을 찾아 맞추면(사34:16) 이간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요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니 예수에게 충성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간자가 된다는 기존 학자들의 말은 엉터리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은 계시를 받은 사람도 뜻을 알지 못하였으니 다니엘도, 스가랴도, 요한도 글을 썼으나 뜻을 알지 못한 것을 본문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세주 자격을 갖추게 될 자를 '이기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며,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며,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들을 줄 터인데 그 둘 위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으며, 넷째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또한 그에게 새별명을 주며, 다섯째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며, 여섯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일곱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일곱 번에 걸쳐 구세주로서 이기는 자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이기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이기기에 일곱 가지의 특징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으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교인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귀를 기만하여 방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실상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만민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엇을 이기는 가에 대한 물음의 정답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경이롭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겠지만, 오늘날 성경은 마귀에게 지는 보통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죽었다는 것은 죄인의 처지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니 마귀 글도 많다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이 성경 속에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마귀한테 지는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고로 당연히 성경에 죄짓지 않는 방법이 논해질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패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면, 앞으로 마귀를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제야 그분의 새말씀의 진리로 채워진 온전한 참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4만 4천의 비밀(계7장)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를 통하여 선택된 인 맞은 자, 14만 4천의 숫자를 액면대로 환란 중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 14만 4천명으로 해석하므로 예수교 계통의 특이한 교파들은 헛된 고행을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례가 지구상에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은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언급하였으니

인 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자처하는 거짓 목자의 말을 믿는 신도들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일부 성경학자는 7년 환란 중에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선택된 성도로 해석하여 이방 교회는 14만 4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흰 옷 입을 많은 무리가 환란 중에서 구원 얻은 이방 교회 성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상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수교 근 2천년 역사 과정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세상이 혼란한 시기에는 거짓 목자가 나타나 예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살아서 예수를 영접할 자격을 얻으려면 순교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야 14만 4천수에 들어간다고 말하여 생업을 전폐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도 허다하였다.(초대 교회 참상, 히 11:35-40 참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50년간 평화가 유지되면서 예수교 신자들은 예수 재림을 강조하던 예수 재림 교회마저 떠나 재림설은 사라져 가면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살아 보려고 힘쓰고 있으니 신앙의 변절자가 되었다.

계시록 본문에서 7수와 12수로 표시한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7수와 12수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수, 완전수이니 사람의 수를 말한 것이 아니다. 모세의 법통을 계승하여 지금까지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교 신자는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일정하게 1만 2천명이 인 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될 수 없다. 평화 시대도 아니고 환란 시대에 순교 정신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다음호에 계속 -

차승도

자신 속의 알을 깨고 나와라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데미안(Demian)』(1919)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자라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싱클레어가 학교에서 데미안의 만남으로부터 싱클레어의 자신을 욕되어 왔던 죄책에서 벗어나갈 수 있었다. 싱클레어에게 있어서 데미안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데미안 자체가 싱클레어 자신 속의 양심이었었고 용기있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던 것이다.

진리를 이루는 양심과 용기와 사랑 그리고 희망 등은 싱클레어의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새로 표현된다.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라함스" - 「싱클레어에게 보낸 데미안(?)의 메시지」

여기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절에 나오는 다시 태어나야 된 다라는 뜻의 거듭남을 떠오르게 한다.

싱클레어가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 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라고 회한(悔悵)과 자성(自省)이 있기 전에, 데미안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매우 독특한 것을 그때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았다. 보았다고 혹은 감지했다고 믿었다. 그것이 남자의 얼굴만은 아니며 또 다른 무엇이라는 것을 여자 얼굴도 그 안에 조금 들어 있는 듯했다. 특히 그 얼굴은 내게 한순간 남자답거나 어린이답지 않고, 웬지 수천 살은 된 것처럼, 웬지 시간을 초월한 듯 우리가 사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인장이 찍힌 것처럼 보였다. 짐승들 아니면 나무들 아니면 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성인이 되어 말하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고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다. 다만 무언가 비슷한 것을 느꼈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미남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내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거슬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것 또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오직 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 그만한 마리 짐승 아니면 유령 아니면 어떤 형상 같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달랐다. 우리 모두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 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만큼도 부분적으로는 나중의 인상들에서 재구성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몇 살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마침내 그와 더 가깝게 접촉하게 되었다. 데미안은 교회에서 관습에 따라 받는 견진 성사를 또래들과 함께 받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해서도 소문들이 당장 꼬리를 물었다. 학교에서는 그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아니 이교도들이라고들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어떤 종교도 갖지 않았거나 어떤 황당하고 나쁜 소수 종파 소속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각자 알을 깨뜨리고 나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날아다니는 새처럼 되기 위해서는, 싱클레어처럼 자신 속에 진리를 구속하고 있는 알 껍데기를 찢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선한 심령의 눈을 가져야 한다. 싱클레어는 두 개의 세계 즉 밝음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중에서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것은 마치 오솔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에 안주하고 길에서 벗어나, 알을 깨뜨리고 해방되어 신에게로 날아가는 새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방황하던 싱클레어는 길 위에 구르는 낙엽을 봐도 깔깔대는 청순한 소녀를 본 이후로 자신 속의 선한 양심이 밝음의 세계로 강렬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림의 완성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존재였고 그 초상의 인물은 알을 깨고 나온 자기 자신이자 또한 데미안이자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었다. 에바 부인은 모든 종파를 초월하고 모든 문학을 포용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彌勒佛出世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는

좁은 미륵만 기다렸다 <56>

감춰진 불경(大藏經) -3

『금강경』 능정업장분 제십육(能淨業障分 第十六)

須菩提 我念過去無量阿僧祇劫 於然燈佛前 得值八百四千萬億那由他諸佛 受供養承事 無空過者

公失開蒙承事 無空過者

수보리아,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劫(阿僧祇劫)을 생각하며 연등부처님 이전에

팔백사천만억(八百四千萬億)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받들고 섬기며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지만,

若復有人 於後末世 能受持 讀誦此經 所得功德 於我所供養諸佛功德 若復有人 於後末世 能受持 讀誦此經 所得功德 於我所供養諸佛功德

약부유인 어후말세 능수지독송차경 소득공덕 어아소공양제불공덕

百分不及一千萬億分 乃至算數譬喻 所不能及

백분불급일천만억분 내지산수비유 소불능급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얻은바 그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며 천, 만, 억분의 (일과) 또는 (무량한) 산수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56>

해설: 이같이 석존은 과거 부처님인 연등부처님(然燈佛) 때에도 수많은 부처님들과 조우하며 해어집에 있으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진실로 정성을 들여 섬기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이러한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하나 현재의 이 금강경의 진실한 뜻을 이해 못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 여러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 법신부처님(法身佛)인 미륵부처님의 진리의 법문을 듣고 빨리 깨달아 복을 닦을 때 과거에 아무리 지은 복과 덕은 억 천 만분의 일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불법의 근본이 앞장에서도 밝혔지만 생노병사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큰일은 미래의 법신부처님인 미륵부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須菩提 若善男子善女人 於後末世 有受持讀誦此經 所得功德 我若具說者 受持 讀誦此經 所得功德 於我所供養諸佛功德 或有人聞 心即狂亂 狐疑不信 須菩提 當知是經義 不可思議 果報 亦不可思議

혹유인문 심즉광란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시경의 불가사의 과보 역불가사의

수보리아,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만일 모두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미친듯 날뛰고(心即狂亂) 미혹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아,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義)도 가히 생각할 수가 없고 과보도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보물 제877호 금강인아비라밀경

해설: 말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읽어서 공덕을 얻는 것은 석존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진실한 뜻이 해설(解說)되어 세상에 나올 때,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여 얻는 과보(果報)가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不可思議)라고 하니, 증일아함경과 법화경(法華經)에서도 법신여래인(法身如來) 미륵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출현(出現)하셔서 참 진리(真理)의 올바른 이치로서 불법(佛法)의 근본(根本)을 말씀하시어도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질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일치(一致)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의 근본이 바로 인생들이 생노병사에서 벗어나 모두가 제도되어 해탈함으로 영원무궁 안락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석존께서 설한 유훈의 법은 세상의 만물이 당연히 죽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비진리의 법식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석존은 자기의 유훈법을 빨리 버리고 미래에 미륵여래께서 오셔서 진실한 일승의 묘한 법을 연설하실 때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이 금강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佛子)들은 지금까지의 사교방식에서 탈피(脫皮)하여 적극적인 사고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승의 법을 체득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明鐘